텅~ 빈 목포신항

물동량 부족…작년에만 적자 45억
국내 첫 민자항…국고 보조 '눈덩이'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내 최초의 민자항만인 목포신항이 물동량의 절대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개장이후 목포신항이 취급한 물동량은 자동차 2백61만2천739t(22만1천64대)과 컨테이너 3만3천242t, 기타 48만760t으로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외에는 대형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면서 500t짜리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수 있는 두대의 대형 크레인도 멈춰선지 오래다.

목포 신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렵게 유치했던 수출용자동차 선적마저 포기했다.

자동차 1대 선적시 실제 수입은 1만5천원에 불과하나 정부는 대당 6만원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항 후 20년간 적자의 90%를 국가에서 보조 받는 목포신항측 입장에서는 자동차 선적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커진다.

이미 2004년도 손실보전금 8억3천만원 중 7억7천5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았고 지난해 손실보전금 45억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수출용자동차 선적 중단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국고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목포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수출용자동차 선적마저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정상적인 협약을 이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목포신항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선장님 택배 왔어요"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대리 수령제 큰 호응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가 선원 등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배 대리 수령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해경 진도파출소가 대리 수령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대부분 선상 생활을 하는 외지 선원들을 위해서다.

오징어와 조기 풍어로 진도 서망항에 외지 어선이 몰리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러 온 선원은 줄 잡아 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선상 생활로 우편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없어 택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특히 이들은 물건을 받으려고 해도 서망항에 우체국이 없어 30㎞가 넘는 인근 우체국까지 4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며 물건을 찾고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파출소는 출입항 선장, 선원들에게 우편물 대리 수령제를 실시한다는 홍보물을 보내고 우편 보관함을 설치한 뒤 우편물 등이 도착하면 경찰관들이 직접 어선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선원은 모두 200여명에 달한다. 경남선적 어선 선장 김모(56)씨는 "장기간 서해에서 고기를 잡다 보니 옷 등 필요한 물건이 많았지만 택배를 받을 만한 주소지가 없어 불편 했는데 이제는 파출소로 보내면 해결된다"면서 "전화만 걸면 가져다 주기까지 해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 부흥산에 현충공원 준공

목포시 옥암동 부흥산에 현충공원(탑)이 준공됐다.

목포시는 지난 19일 각급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현충공원(탑) 준공식을 가졌다.〈사진〉

부흥산 현충공원은 부지 1만 6천927㎡에 26억 원이 투입돼 높이 20m의 현충탑을 비롯한 상징조형물, 위패실과 현충공원이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유달산 현충탑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규모가 협소해 나이 많은 시민과 국가 유공자들이 참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새로 조성된 현충공원은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파출소 운전면허 교육 합격률 '쑥'

목포경찰서 신의파출소
섬 주민 40명 80% 합격

신안 섬지역 파출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한 교육을 벌여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경찰서 신의파출소 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5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치러졌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40명이 합격, 8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신의 파출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최근 차량 등록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신의파출소장으로 부임한 박영옥 소장은 "문맹자나 여성,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반복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파출소에서도 보충수업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민 홍성연씨는 "파출소 직원들 덕분에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 향토랑 농·수산물
롯데百 분당점서 판매전

무안군(군수 서삼석)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롯데 백화점 분당점에서 '무안 향토랑 농·수·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이번 물산전에는 무안 황토랑쌀을 비롯한 친환경 잡곡류 및 채소와 가공식품 등 50여종의 농·수·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무안군은 금명간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 서울 경기 지역 재경향우회원 및 언론인, 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농·수·특산물의 안정정인 판로 확보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30여차례의 직거래장터 등 판촉 활동을 통하여 3억7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다. 올해도 30여회에 걸쳐 각종 물산전 및 직거래행사등 릴레이 판촉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기계 직접 고쳐 작년 1,200만원 절감

신안 압해분뇨처리장

신안군 시설관리사업소 압해분뇨처리장 직원들이 자체 인력으로 장비와 기계를 수리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분뇨처리장은 각종 장비 150여대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 1회 수리비가 30~4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용접기와 산소절단기 등 20여 종의 공구로 자체수리에 착수해 1천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인근 신안보육원 원생 숙소도 직원들이 말끔하게 단장했으며 분뇨처리동 외벽에 벽화를 제작하는 등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목포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시는 일반인 30명 이상, 학생 60명 이상을 목포시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서 1박·1식이상 유치한 여행사에게 일반인은 1인당 5천원, 학생은 1인당 2천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여행사는 최종 숙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작성, 목포시청 관광기획과로 우편으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270-8698 /목포=임영춘기자 lyc@

작년 응급환자 8,503명 응급처치

목포소방서(서장 박남배) 119구급대가 지난해 총 1만여회의 구급출동으로 8천503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처치했다.

질환별로는 급·만성 질환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고 사고부상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8%로 나타나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대 가장들의 건강관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저소득층 노인 70여명에
목포보건소 틀니 무료 시술

목포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틀니) 무료 시술'사업을 벌인다.

무료 의치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받고 시내 치과병원에서 무료 위탁 시술을 받게된다.

1인당 200만원 이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7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목포시 보건소는 현재 무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동사무소를 통해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